

#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선정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유태순

## 目 次

I. 서 론	IV.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II.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문화이식현상	V. 결 론
III.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복식은 시대정신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조형물의 하나이며, 특히 민속의상은 역사적인 운명과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지닌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민족집단의 독자성을 나타내기 위해 착용된다. 또한 민속의상에는 민족특유의 풍속, 형태, 색상, 소재, 기술 등이 표현되어 있다. 민족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문화적 교류가 복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접목되어 기존의 형태를 발전시키는 변화를 유도하였다<sup>1)</sup>.

스페인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중남아메리카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인 지배는 물론, 문화적 제국주의를 수립하면서 문화이식(assimilation)을 도래케 하였다. 따라서 중남아메리카는 라틴계의 언어, 로마가톨릭의 종교, 주민의 혼혈화라는 문화적 동일성으로 말미암아 라틴아메리카라는 호칭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결과 스페인의 이식현상이 문학, 건축, 무용, 음악, 그리고 복식 등 라틴아메

리카의 문화전반에 표출되어 나타났다<sup>2)-5)</sup>.

따라서 본 연구는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를 통치하는 동안 스페인의 민속의상이 문화이식현상으로 인해서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민속의상에 관련된 사진자료, 참고서적 및 문헌, 방문 등을 통하여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을 남녀별로 분류하여 색상, 소재, 문양, 장신구 등의 복식형태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II.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 문화이식현상

#### 1. 문화이식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체계는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문화와 접촉관계를 맺고 있는 데,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문화전파현상이 발생한다. 전파는 두 사회가 직접적으로 접촉하

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 만약 상이한 두 사회의 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제1차적인 혹은 직접적인 접촉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식(assimilation)이라고 한다<sup>6)</sup>. Redfield, Linton과 Herskovitz(1948)<sup>7)</sup>는 “문화이식이란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하는 집단구성원간에 장기적이고 단계적 접촉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기집단 구성원이나 타집단 구성원의 문화적 태도양식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Thurnwald(1966)<sup>8)</sup>는 “문화이식이란 이질문화에서 온 새로운 생활습관에서의 적응”이라 하였다. Dankwort(1959)<sup>9)</sup>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질문화 구성원간에 개인적인 또는 비개인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접촉과정을 통해 이질문화를 받아 들이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문화이식”으로 정의하였고, 이질문화에 대한 적응현상을 문화이식, 고유문화의 포기, 신문화의 형성으로 제시하였다. OttMarti(1976)<sup>10)</sup>는 문화이식현상이 언어, 신앙, 양식, 풍습 등을 통하여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질문화권의 사람이 가장 쉽게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의생활이라고 하였으며, 유태순(1985)<sup>11)</sup>은 재독한국여성의 문화이식에 대한 연구에서 의생활양식이 문화이식과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지표라고 제안하였다.

Moore(1974)<sup>12)</sup>은 문화전파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간의 접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식민지화를 비롯한 제국주의가 문화접촉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문화이식은 정복이나 식민지통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한 사회집단이 어떤 강력한 지배적인 사회와 거의 전면적인 접촉관계에 들어갈 때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은 광범위한 문화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 2.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문화이식현상

〈표 1〉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문화이식현상

	문화이식	식민역사
멕시코	민족: 메스티조(60%), 원주민(25%)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21년 스페인 식민통치 1821년 독립
과테말라	민족: 원주민(56%), 메스티조(36%) 종교: 가톨릭, 개신교 언어: 스페인어	1524년 스페인 식민통치 1821년 독립
온두리스	민족: 메스티조(91%)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22년 스페인 식민통치 1821년 독립
코스타리카	민족: 메스티조(95%)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24년 스페인 식민통치 1821년 독립
파나마	민족: 메스티조(65%), 흑인(13%)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19년 스페인 식민통치 1821년 독립
쿠바	민족: 메스티조(60%), 백인(25%)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11년 스페인 식민통치 1899년 독립
콜롬비아	민족: 메스티조(58%), 백인(20%)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21년 스페인 식민통치 1810년 독립
남아메리카	민족: 메스티조(66%), 백인(22%) 종교: 가톨릭, 개신교 언어: 스페인어	1499년 스페인 식민통치 1821년 독립
페루	민족: 원주민(45%), 메스티조(37%)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31년 스페인 식민통치 1821년 독립
볼리비아	민족: 원주민(55%), 메스티조(32%)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32년 스페인 식민통치 1821년 독립
파라과이	민족: 메스티조(97%)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36년 스페인 식민통치 1811년 독립
칠레	민족: 백인(95%)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36년 스페인 식민통치 1818년 독립
아르헨티나	민족: 백인(97%)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536년 스페인 식민통치 1816년 독립
우루과이	민족: 백인(90%) 종교: 가톨릭 언어: 스페인어	1726년 스페인 식민통치 1828년 독립

스페인은 콜롬부스의 신대륙발견으로 인하여 아메리카를 유럽과 연결시켜 신대륙을 식민통치하였고, 이것은 라틴아메리카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6세기부터 스페인은 탐험가와 정복자를 신대륙에 파견하여 정복활동을 개시하였는데, 1511년에는 카리브지역을 정복하여 이 지역을 발판으로 대륙의 정복을 추진하였다. 또한 1519년에는 파나마를 정복하여 태평양연안을 정복의 거점으로 삼았고, 1521년에 멕시코, 1522년부터 1524년동안 과테말라, 온두拉斯, 코스타리카 등을 점령하여 중앙아메리카를 통치하였다. 1531년부터 1532년동안 현재 페루와 블리비아로 형성된 잉카제국을 점령하였고 1536년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정복하여 남아메리카를 통치하였다<sup>13)</sup>.

스페인은 16세기에서 19세기동안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인 지배와 종속의 구조를 가져왔고 그 위에 문화적 제국주의를 수립하였다. 라틴아메리카는 문화접촉과정을 통해 스페인의 식민문화를 자기 고유문화에 이식받아 라틴계의 언어, 로마가톨릭의 종교, 원주민과 스페인계의 혼혈인 메스티조(mestizo)라는 문화현상을 낳게 되었다.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문화이식현상을 <표 1>에 제시하였다<sup>14)15)</sup>.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에 문화적 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민의 토착문화를 금지시키고 예술, 사회조직, 과학, 복식 등의 유럽문화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스페인의 문화이식정책은 라틴아메리카에 커다란 문화변동을 맞게 하였으며,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에서 가장 큰 변환기를 유도하여 다양한 문화형태를 발생케 하였다.

### III.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

스페인의 민속의상은 스페인에서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하여 민속의상에 영향을 많이 미친 안달루시아, 아라곤, 사라망카, 발레아레스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sup>16)</sup>.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분류하여 중앙아메리카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拉斯, 코스타리카, 파나마, 쿠바로 구분하였고, 남아메리카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블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로 나누었다.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을 남녀별로 분류하여 색상, 소재, 문양, 장신구 등의 복식형태를 비교한 특징을 <표 2>, <표 3>,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 1. 여성의상

##### 1) 스페인의 민속의상

안달루시아의 여성은 바디스가 엉덩이까지 몸에 꼭 맞고 스커트와 소매에 여러 층의 넓은 프릴이 달린 무도복을 착용하며, 노란색바탕에 흰색 점무늬가 들어있다. 프린징장식이 달린 솔을 어깨에 걸치고 머리에는 꽃장식을 한다.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펌프스를 신는다<sup>17)</sup><그림 1>. 또한 무도복과 유사한 스타일의 붉은색 외출복은 소매와 스커트의 가장자리에 검은색 레이스가 장식된다. 장식벗인 에스카르피도르(escarpidor)를 머리에 쓰고 그 위에 만틸라(mantilla)라는 솔을 걸친다. 머리에 꽃장식을 하고 손에 부채를 든다<sup>18)</sup><그림 2>. 아라곤의 여성은 검은색바탕에 꽃무늬가 들어간 개더스커트와 검은색 바디스를 착용하고, 앞에서 교차시켜 뒤에서 묶는 프린징장식이 있는 솔과 에이프런을 걸친다. 등근 귀걸이와 끈으로 맨 목걸이를 하고 스타킹과 알파가타(alpargatas)를 신는다<그림 3>. 발레아레스의 마조르카여성은 칠부소매의 검은색 바디스와 풍성한 푸른색 개더스커트를 착용하고, 턱 밑에서 묶고 앞으로 내려오면서 단추를 잡그는 베일을 머리에 두른다. 팔찌를 하고 스타킹과 펌프스를 신는다<그림 5:우>. 또한 이비자여성은 검은색의 아코디언풀리즈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착용하고, 프린징이 달린 솔과 삼각형의 에이프런을 걸친다. 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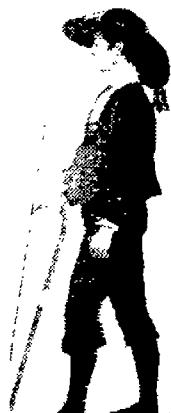
〈그림 1〉 안달루시아무도복  
(World Dress, p.65.)



〈그림 2〉 안달루시아외출복  
(原色世界服飾圖鑑, p.10.)



〈그림 3〉 아라곤  
(Folk Costumes of the World, p.25.)



〈그림 4〉 사라망카  
(The Folk Dress of Europe, p.45.)



〈그림 5〉 발레아레스  
(Folk Costumes of the World, p.23.)



〈그림 6〉 멕시코  
(Morning Calm, p.30.)



〈그림 7〉 멕시코  
(原色世界衣服圖鑑, p.65.) (五色の燐きクアテマラ・マヤ民俗衣裳展, p.84.)



〈그림 8〉 과테말라  
(五色の燐きクアテマラ・マヤ民俗衣裳展, p.84.)



〈그림 9〉 과테말라  
(五色の燐きクアテマラ・  
マヤ民俗衣裳展, p.100)



〈그림 10〉 온두라스

(Folk Costumes of the World, p.72.)



〈그림 11〉 코스타리카

(Folk Costumes of the World, p.73.)



〈그림 12〉 파나마

(Folk Costumes of The World, p.74.)



〈그림 13〉 쿠바

(Folk Costumes of The World,  
p.75.)



〈그림 14〉 콜롬비아(좌:남여) 베네수엘라(우)

(Folk Costumes of the World, p.76.)



〈그림 15〉 페루(좌:남여) 블리비아(우)

(Folk Costumes of the World, p.78.)



〈그림 16〉 파라과이(좌) 칠레(우)

(Folk Costumes of the World, p.79.)



〈그림 17〉 아르헨티나

(Festivals & Costumes in the World, p.25.)



〈그림 18〉 우루과이

(Folk Costumes of The World, p.80.)

금체인과 목걸이를 하며 스카프는 턱아래로 맨다. 페티코트를 입고 스타킹위에 알파가타를 함께 착용한다<sup>19)</sup>〈그림 5:좌〉.

## 2)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

### (1) 중앙아메리카의 민속의상

멕시코의 여성은 넓은 프릴이 달린 블라우스와 개더스커트를 착용하는 데. 검은색 바탕에 아주 화려한 색상의 커다란 꽃무늬가 들어 있다. 다섯 개의 층으로 절개선이 들어간 스커트는 층마다 버튼 홀스티치로 장식된다. 머리에 꽃장식을 하고 팔찌와 샌들을 착용한다<sup>20)</sup>〈그림 7〉. 과테말라의 여성은 흰색 바탕에 다양한 색상의 점무늬가 들어 있는 프릴 달린 블라우스를 입고, 화려한 줄무늬로 직조된 폭이 넓은 스커트를 착용한다. 머리띠와 새시를 두르는데, 여기에는 마야인의 믿음을 강하게 표현한 새, 사람, 기하학무늬의 자수가 놓여 있고 샌들을 신는다<sup>21)</sup>〈그림 9〉. 온두라스의 여성은 프릴과 짧은 퍼포소매가 달린 흰색 블라우스를 착용한다. 풍성한 개더스커트는 단주위에 프릴이 달리고 스티치가 있는 밴드로 장식을 하며, 목에 여러 줄의 구슬 목걸이를 걸치고 샌들을 신는다〈그림 10〉. 코스타리카의 여성은 꽃무늬자수가 놓인 여러 층의 프릴 달린 흰색 블라우스를 착용한다. 단주변에 여러 층의 넓은 프릴이 달린 붉은색과 보라색의 개더스커트를 입으며, 프린징이 달린 솔을 어깨나 머리위에 늘어뜨린다. 끈으로 맨 목걸이나 등근 귀걸이를 하고 샌들을 신는다〈그림 11〉. 파나마의 여성은 스페인으로부터 전래된 흰색 폴레라(pollera)를 착용한다. 이것은 풍성한 개더스커트와 여러 층의 프릴이 달린 블라우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렌시아(Valencian)레이스와 문디조(Mundizzo)레이스의 자수로 덮여 있다<sup>19)</sup>. 머리에는 꽃으로 장식하며 끈으로 맨 목걸이와 샌들을 신는다〈그림 12〉. 쿠바에서 민속춤을 출 때 여성은 몸에 꼭 맞는 프릴 달린 바디스와 단주위에 프릴이 잡힌 풍성한 개더스커

트를 착용하며, 흰색 바탕에 붉은색 점무늬가 들어 있다. 머리에 점무늬의 터번을 매고 그 위에 밀짚 모자를 착용하며, 등근 귀걸이를 하고 맨발로 다닌다〈그림 13〉.

### (2) 남아메리카의 민속의상

콜롬비아의 여성은 화려한 색상의 꽃무늬가 들어간 검은색 개더스커트와 프릴이 달린 흰색 블라우스를 입는다. 케이프처럼 덮는 프린징장식이 있는 솔을 머리에 두르고 그 위에 펠트모자를 쓴다. 보석 목걸이와 알파가타를 착용한다〈그림 14〉. 페루의 여성은 붉은색 바탕에 화려한 장식이 들어간 짧은 블라우스와 풍부하게 개더잡은 검은색 스커트를 착용하고, 짧은 망토를 머리에 돌려 턱밑에서 고정시킨다. 챙이 위로 접혀 올라간 납작한 모자를 쓰며 맨발로 다닌다〈그림 15:좌〉. 볼리비아의 여성은 풍성하게 주름이 들어간 청록색 블라우스와 붉은색 개더스커트를 착용하며, 블라우스는 스커트밖으로 내어 입는다. 어깨에 망토나 솔을 두르고 맨발로 다닌다. 머리에 중절모형태의 펠트모자를 쓰는데, 이것은 교회에 들어갈 때 항상 벗는다〈그림 15:우〉. 파라과이의 여성은 흰색 바탕에 화려한 색상의 꽃무늬가 들어간 개더스커트와 등근 네크라인의 보라색 블라우스를 착용한다. 머리에 꽃으로 장식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목걸이가 인기가 있으며 펌프스를 신는다<sup>19)</sup>〈그림 16〉. 아르헨티나의 여성은 여러 층의 프릴이 달린 푸른색 개더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입고 어깨에 솔을 걸치기도 한다. 머리에 꽃으로 장식을 하고 펌프스를 신는다<sup>22)</sup>〈그림 17〉.

## 2. 남성의상

### 1) 스페인의 민속의상

안달루시아의 남성은 흰색 셔츠와 짧은 재킷을 입고 허리위에서 꼭 맞는 바지와 그 위에 발목길이의 승마용 바지덮개를 착용한다. 허리에 새시를 두

〈표 2〉 스페인의 여성의상

		색상	소재	문양	장신구	의상
안 달 루		노란색 녹색	면	무지 점무늬	귀걸이, 목걸이 꽃장식 펌프스	바디스, 프릴달린 스커트 프린징이 달린 솔
		붉은색 검은색		견 레이스	무지	에스카르피도르 꽃장식, 부채
시 아 라곤		보라색 검은색	면 견 벨벳	무지 꽃무늬	알파가타 둥근 귀걸이 끈으로 맨 목걸이	바디스, 개더스커트 프린징달린 솔, 에이프런, 스타킹
		흰색 푸른색 검은색		무지	베일 꼴찌 펌프스	바디스, 개더스커트 스타킹
발 레 아 레 스		이비 자 자	면 브로케 이드	무지	스카프 금체인, 목걸이 알파가타	아코디온플리츠스커트, 블라우스 프린징달린 솔, 에이프런 페티코트, 스타킹

〈표 3〉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의상

		색상	소재	문양	장신구	의상
중 앙 아 메 리 카		붉은색 보라색 검은색	견	무지 꽃무늬	꽃장식 꼴찌 샌들	프릴달린 블라우스 개더스커트
		흰색 붉은색 청록색		무지 점무늬 줄무늬	머리띠 샌들	프릴달린 블라우스 폭이 넓은 스커트 새시
		온두 라스		무지	구슬목걸이 샌들	스티치장식, 프릴달린 블라우 스와 개더스커트
코스 타리카		흰색 붉은색 보라색	면 견	무지 꽃무늬	둥근 귀걸이 끈으로 맨 목걸이 샌들	프릴달린 블라우스와 개더스커트 프린징달린 솔
		파나마		무지 꽃무늬	꽃장식 끈으로 맨 목걸이 샌들	프릴, 자수, 개더 들어간 블라우 스와 스커트
쿠바		흰색 붉은색	면	무지 점무늬	터번, 밀짚모자 둥근 귀걸이, 맨발	프릴, 개더 들어간 바디스와 스커트
		콜롬 비아		무지 꽃무늬	펠트모자 보석목걸이 알파가타	프릴달린 블라우스, 개더스커트 프린징달린 솔
페루		붉은색 청록색 검은색	모	무지	펠트모자 맨발	블라우스, 개더스커트 망토
		볼리 비아		무지	펠트모자 맨발 숟가락	블라우스, 개더스커트 망도나 솔
파라 과이		흰색 붉은색 분홍색	면	무지 꽃무늬	꽃장식 목걸이 펌프스	블라우스, 개더 스커트
		아르 헨티나		무지	꽃장식 펌프스	프릴달린 블라우스와 개더 스커트, 솔

〈표 4〉 스페인의 남성의상

	색상	소재	문양	장신구	의상
안달 루시아	흰색 갈색	면 가죽	무지	펠트모자 부츠	셔츠, 재킷, 바지 승마용바지덮개, 새시
	붉은색 검은색	면, 모 벨벳	무지	헤어밴드 알파가타	셔츠, 조끼, 풍성한바지, 속바지 새시, 스타킹
아라곤 사라 망카	흰색 푸른색 검은색	면, 모 벨벳	무지	펠트모자 지팡이, 가죽신	리플달린 셔츠, 조끼 재킷, 바지
	발레 아레스	면 견	무지 도드라진 무늬	가죽신	셔츠, 조끼 개더잡힌 바지 스카프, 새시, 스타킹

〈표 5〉 라틴아메리카의 남성의상

	색상	소재	문양	장신구	의상
중 앙 아 메 리 카	멕시코 흰색 붉은색 갈색	면 모 가죽	무지	펠트모자 부츠	셔츠, 바지 승마용바지덮개 스카프, 새시
	과테 말라 흰색 붉은색 갈색	면 가죽	무지 줄무늬 기하학무늬	밀짚모자 벨트 샌들	셔츠, 바지 승마용바지덮개
	코스 타리카 흰색 붉은색 검은색	면	무지	밀짚모자 부츠 장식칼	셔츠, 바지 스카프, 새시
파나마 쿠바	파나마 흰색 갈색	면 아마	무지	밀짚모자 알파가타	자수들어간 셔츠와 바지
	흰색 붉은색	면	무지 줄무늬	밀짚모자 맨발	셔츠, 바지
	콜롬 비아 흰색 붉은색 푸른색	면	무지	펠트모자 알파가타	셔츠, 바지 새시, 스카프, 벨트
남 아 메 리 카	베네 수엘라 흰색 붉은색	면	무지 줄무늬	밀짚모자 알파가타	셔츠, 바지 스카프
	페루 노란색 주홍색 검은색	모	줄무늬 기하학무늬	줄로 샌들	셔츠, 바지 프린팅달린 판쵸
	칠레 갈색 푸른색 검은색	면 가죽	무지 줄무늬	턱끈달린 펠트모자 부츠	셔츠, 재킷, 바지 레깅스 스카프, 판쵸
아르 헨티나	흰색 붉은색 검은색	면 모	무지 줄무늬	부츠	셔츠, 재킷 봄바차스바지 치리파, 새시, 스카프
	우루 과이 흰색 녹색 푸른색	면 모	무지 바둑무늬	펠트모자 부츠	셔츠, 봄바차스바지 벨트, 스카프

르고 머리에 펠트모자를 쓰며 부츠를 신는다<sup>17)</sup>〈그림 1〉. 아라곤의 남성은 헐렁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조끼를 착용하고, 무릎에서 풍성하게 주름잡힌 흰색 속바지위에 검은색 바지를 입는다. 붉은색의 넓은 새시와 헤어밴드를 두르고 스타킹과 알타가파를 신는다〈그림 3〉. 사라망카의 남성은 러플이 달린 흰색 셔츠와 화려한 색상으로 장식된 조끼를 입고, 짧은 재킷과 무릎아래까지 오는 몸에 꼭 맞는 푸른색 바지를 착용한다. 장식끈이 달린 펠트모자를 쓰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sup>23)</sup>〈그림 4〉. 발레아레스의 남성은 헐렁한 흰색 셔츠와 개더가 들어간 풍성한 주홍색 바지를 착용하고, 그 위에 무늬를 도드라지게 짠 조끼를 입는다. 목에 스카프를 감아 늘어뜨리고 허리에 넓은 새시를 두르며 스타킹과 가죽신을 신는다<sup>19)</sup>〈그림 5〉.

## 2)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

### (1) 중앙아메리카의 민속의상

멕시코의 남성은 몸에 꼭 맞는 흰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발목길이의 승마용 가죽덮개를 착용한다. 스카프를 목에 매고 머리에 펠트모자를 쓰며 부츠를 신는다<sup>24)</sup>〈그림 6〉. 과테말라의 남성은 흰색바탕에 붉은색 줄무늬와 기하학무늬가 들어간 헐렁한 셔츠와 바지를 착용하고, 그 위에 무릎까지 오는 승마용 가죽덮개를 입는다. 밀짚모자를 쓰고 허리에 벨트를 차며 샌들을 신는다<sup>21)</sup>〈그림 8〉. 코스타리카 남성은 헐렁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착용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다. 허리에 새시를 매고 장식칼을 새시에 걸어둔다. 밀짚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는다〈그림 11〉. 파나마의 남성은 아주 헐렁한 흰색 셔츠와 바지를 착용하며, 셔츠와 바지의 가장 자리에는 여러 가지 자수장식이 놓여있다. 알파가타를 신고 밀짚모자를 쓴다〈그림 12〉. 쿠바의 남성은 흰색바탕에 붉은색 줄무늬가 들어간 헐렁한 셔츠를 흰색 바지밖으로 내어 착용한다. 밀짚모자를 착용하고 주로 맨발로 다닌다<sup>19)</sup>〈그림 13〉.

### (2) 남아메리카의 민속의상

콜롬비아의 남성은 흰색 셔츠에 푸른색 바지를 착용하고 목에 스카프로 매듭을 맨다. 허리에 새시를 하고 그 위에 벨트로 장식을 한번 더 한다. 머리에 펠트모자를 쓰고 알파가타를 신는다〈그림 14:좌〉. 베네수엘라의 남성은 흰색바탕에 붉은색 줄무늬가 들어간 셔츠를 흰색 바지밖으로 내어 착용하며 목에 스카프를 맨다. 밀짚모자는 챙을 말아 올린 채로 쓰며 알파가타를 신는다〈그림 14:우〉. 페루의 남성은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화려한 색상의 판쵸를 착용하며, 줄무늬나 기하학무늬가 들어간 판쵸는 페루남성의 중요한 의상이다. 긴 귀덮개가 달린 출로(chullo)를 머리에 쓰는데, 이것은 보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머리장식이며 샌들을 신는다〈그림 15〉. 칠레에서 남성은 흰색 셔츠와 푸른색 재킷을 입고, 검은색바탕에 가는 줄무늬가 들어간 바지와 그 위에 무릎위까지 오는 헤깅스를 착용한다. 화려한 색상의 사각형 판쵸를 재킷위에 입고 목에는 스카프를 두른다. 턱끈이 달린 펠트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는다〈그림 16〉. 아르헨티나의 남성은 흰색 셔츠와 풍성한 분홍색 재킷을 입고 검은색 봄바차스(bombachas)를 착용한다. 그 위에 줄무늬로 된 치리파(chiripa)라는 에이프린을 두르는데. 몸을 감싸서 새시속에 집어 넣으며 부츠를 신는다<sup>22)</sup>〈그림 17〉. 우루과이의 남성은 바둑무늬의 녹색 셔츠와 풍성한 푸른색 봄바차스를 착용하며 바지는 부츠속에 넣어 입는다. 스카프로 목에 매듭을 매고 벨트와 턱끈이 달린 펠트모자를 착용하며 부츠를 신는다<sup>25)</sup>〈그림 18〉.

## IV.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 1.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여성의상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이전의 아즈텍문명, 마야문명, 잉카문명에서 볼 수 있는 원주민

의 여성은 투늬형태의 위필(huipil)과 스커트로 된 관두의를 입었고<sup>26)</sup>, 스페인의 통치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은 스페인의 문화이식으로 인해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구성된 유럽의 기본형을 착용하였다<sup>27)</sup>.

유럽의 어느 민속의상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스페인의 프릴장식은 라틴아메리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 안달루시아의 무도복이나 외출복에서 볼 수 있는 프릴장식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쿠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서 라틴아메리카로 이민을 많이 왔기 때문에<sup>16)</sup>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의 여성은 소매나 스커트에 여러 층의 넓은 프릴을 장식하였고,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은 블라우스의 네크라인에 여러 층의 좁거나 넓은 프릴을 장식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라곤과 발레아레스에서 볼 수 있는 개더스커트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착용한 기본스타일의 하나인 허리에 풍성하게 개더가 들어간 스커트는 라틴아메리카에 그대로 이식되어 보여졌다.

스페인의 여성의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은 안달루시아와 아라곤, 발레아레스 등 모든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레보조(rebozo)나 스톨(stol)로 통하는 출은 장식의 목적외에도 교회에서 머리를 가릴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쁜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기도 하고, 이것을 어깨에 매달아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발전되었다<sup>19)</sup>. 또한 발레아레스의 마조르카여성이 턱밑에서 묶고 앞으로 내려오면서 잡그는 베일은 페루의 망토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안달루시아와 사라망카의 남성이 착용한 모자는 라틴아메리카의 쿠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의 여성에서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 스페인의 여성

은 베일이나 솔, 손수건의 간단한 두건을 쓰는 정도 특별한 모자는 착용하지 않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은 스페인의 남성이 쓰는 펠트모자를 주로 썼다. 또한 쿠바에서는 기후적 특성으로 인하여 펠트모자대신에 밀짚모자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은 주로 챙이 좁은 모자를 많이 썼고, 모자에는 다양한 색상의 밴드나 풍선으로 장식하였다.

아라곤과 발레아레스의 알파가타는 콜롬비아에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안달루시아와 발레아레스의 펌프스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 그대로 흡수되어 나타났다. 또한 아라곤의 동근 귀걸이는 코스타리카와 쿠바에서 영향을 받았고, 끈으로 장식한 목걸이는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안달루시아의 외출복에서 볼 수 있는 꽃장식은 멕시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서 수용되어 보여졌다.

안달루시아의 무도복에는 유럽의 어느 민속의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무늬가 들어 있다. 이것은 이베리아반도의 역사나 문화에 의한 스페인의 특유한 지리적 위치는 다른 유럽국가와 차이가 나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sup>22)</sup>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무늬는 과테말라와 쿠바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스페인과 쿠바에서는 한 가지 색상의 바탕위에 한 가지 색상의 점무늬가 들어있고, 과테말라에서는 한 가지 색상의 바탕위에 다양한 색상의 점무늬가 놓여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속춤을 춤 때 입는 무도복이라는 점에서도 스페인과 쿠바에서 서로 유사한 발견을 할 수 있다.

아라곤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작은 꽃무늬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에서 나타났고, 프린트나 자수가 들어간 꽃무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크기가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이러한 무늬는 스페인에서 수입된 솔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나타나기도 하였다<sup>19)</sup>.

## 2.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남성의상

스페인의 정복이전 아즈텍문명이나 잉카문명, 마야문명에서 볼 수 있는 원주민의 남성은 로인클로스를 입거나, 그 위에 오른쪽 어깨에서 묶여지는 망토를 착용하였다. 또한 투늬형태의 위펠을 추운 지방에서 입기도 하였다<sup>27)</sup>. 그러나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정복이후 남성은 셔츠와 바지로 구성된 유럽의 기본형태를 착용하였다. 이것은 디자인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끼와 재킷은 거의 착용하고 있지 않다.

안달루시아에서 나타난 카우보이스타일의 무도복은 멕시코, 과테말라와 칠레에서 영향을 받아 착용하였다<sup>17)</sup>. 스페인은 북아메리카대륙에 기마를 소개하여 말의 기술을 멕시코에서 미국서부로 퍼지게 하였는데, 이것이 카우보이의 원조라 할 수 있다<sup>18)</sup>. 또한 스페인과 멕시코의 남성은 발목길이의 승마용 바지덮개를 바지위에다 입었고, 과테말라와 칠레의 남성은 무릎까지 오는 바지덮개나 헤깅스를 착용하였다.

발레아레스의 풍성한 바지는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에서 가우초(gaucho)가 입는 봄바차스에 영향을 주었다<sup>17)</sup>. 스페인의 남성은 무릎을 덮을 정도 바지를 짧게 입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남성은 봄바차스를 길게 착용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Sarmiento는 가우초의 봄바차스에 대한 유래는 아랍인의 복식에서 볼 수 있다고 Facundo에서 설명하였다<sup>27)</sup>. 이것은 스페인이 8세기에 이슬람교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때 이후 발레아레스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의 후예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스페인의 발레아레스에서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해 온 사람이 많아서<sup>16)</sup>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아라곤과 발레아레스의 허리에 두르는 새시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영향을 받았다. 새시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애용되었으며, 스페인에서 매우 넓은 새시

는 포켓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장식용으로 주로 붉은색이나 청록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sup>19)</sup>.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새시를 허리에 두르고 그 위에 벨트와 같은 장식물을 한 번 더 두르는 발전된 형태를 보여 주었다.

발레아레스의 스카프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의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서 착용하였다. 스페인과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셔츠의 칼라 안에 넣어 붉은색 스카프를 둘렀고,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에서는 다양한 색상으로 스카프를 주로 목에 둘렀다.

안달루시아과 사라망카의 펠트모자는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등 많은 나라에서 애용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펠트모자처럼 여러가지 장식과 다양한 형태를 지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고, 밀짚으로 만든 모자도 기후적 특성때문에 여러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났다.

안달루시아에서 볼 수 있는 부츠는 종아리와 발목을 보호하고 말을 탈 때 발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카우보이가 착용하였다. 이것은 기수와 카우보이가 많이 있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 흡수되어 나타났다. 아라곤의 알과가타는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영향을 받아 착용하였다.

스페인의 남성은 무지로 된 의상을 주로 입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쿠바,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는 줄무늬나 바둑무늬를 사용하였고, 원주민이 많은 과테말라와 페루에서는 토착적인 줄무늬나 기하학무늬를 사용하였다.

## 3.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스페인의 민속의상은 문화이식과정에서 발생하는 동화나 융합현상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에 다양한 형태변화를 유도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은 스페인의 민속의상에 그대로 흡수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일방적으로 흡수되어 나타난 문화이식과정에서 동화(assimilation)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sup>6)</sup>.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의상은 블리우스와 스커트로 구성된 유럽의 기본형을 수용하여 착용하였으며, 스페인여성의 개더스커트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 그대로 흡수되어 나타났다. 스페인의 여성의상에 볼 수 있는 베일, 펌프스, 등근 귀걸이, 끈으로 장식한 목걸이, 꽃장식은 그대로 흡수되어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의상에 표현되었다. 스페인의 남성의상에서 볼 수 있는 부츠는 라틴아메리카의 남성의상에 나타났다. 吳慧婷(1998)<sup>31)</sup>의 대만여성의 신발변화연구에서 일본의 식민통치 동안 일본문화가 대만의 복식문화에 그대로 수용되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발견을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은 스페인의 민속의상을 수용하여 라틴아메리카의 기후적, 지리적인 문화적 특성에 맞게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는 수용하는 측에서 전파되어 온 요소들을 모두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려는 측의 생활조건에 맞는 것만을 선택하며, 또한 새로이 등장한 문화요소는 기존의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을 유발하는 문화이식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sup>31)</sup>. 따라서 스페인에서는 소매나 스커트에 프릴을 장식한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블리우스의 네크라인에 프릴을 장식하였으며, 스페인의 남성이 착용한 펠트모자는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의상에서 선택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스페인의 여성의상에서 프린징이 달린 솔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다양한 용도로 발전되었으며, 스페인의 여성의상에서 점무늬와 꽃무늬는 라틴아메리카의 여성의상에서 여러가지 색상과 다양한 크기로 표현되었다. 스페인남성의 카우보이의상과 헐렁한 바지는 라틴아메리카에 맞는 정착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스페인 남성의 새시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벨트와 같은 장

식물을 한 번 더 두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페인남성의 스카프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다양한 색상으로 칼라안에 넣거나 목에 두르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스페인남성의 펠트모자는 라틴아메리카의 남성의상에서 여러가지 장식과 형태를 지닌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은 스페인의 민속의상에 흡수되지 않고 더욱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파되어 온 요소들이 처음 상태로 흡수되지 않고 더 낮은 형태로 나타난 문화이식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남성은 셔츠와 바지의 유럽형태를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의상구조이며 스페인에서 볼 수 있는 조끼와 재킷은 거의 착용하고 있지 않다.

스페인의 민속의상과 라틴아메리카의 토착적인 민속의상이 융합되어 전통문화를 더욱 풍성한 형태로 만들었다. 이러한 형태는 두 개의 문화가 거의 전면적인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제3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문화이식과정에서 융합(fusion)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sup>31)</sup>.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에서 자수, 직조, 염색, 색상과 문양은 고대 아즈텍 문명과 마야문명, 잉카문명의 영향을 받았으며 복식형태는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Malinowski(1945)<sup>32)</sup>의 아프리카지역연구에서 아프리카의 문화가 서구의 문화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조화발전시켜 균형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 현상과 일치한다. 또한 이유경, 김진구(1995)<sup>33)</sup>의 우리나라 개화기 및 일제침략시기를 중심으로 한 양복수용과정의 연구에서 양복과 한복이 혼용되거나 양복의 특징이 한복에 가미되어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를 식민통치하는 동안 스페인의 민속의상이 문화이식현상으로 인

해서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은 스페인의 민속의상에 그대로 흡수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일방적으로 흡수되어 나타난 문화이식과정에서 동화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

둘째,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은 스페인의 민속의상을 수용하여 라틴아메리카의 기후적, 지리적인 문화적 특성에 맞게 발전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는 전파되어 온 요소들은 수용하려는 측의 생활조건에 맞는 것만 선택되고 또한 새로이 등장한 문화요소는 기존의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을 유발하는 문화이식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

셋째,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은 스페인의 민속의상에 수용되지 않고 더욱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파되어 온 요소들이 처음 상태로 수용되지 않고 더 낮은 형태로 나타난 문화이식현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스페인의 민속의상과 라틴아메리카의 토착적인 민속의상이 융합되어 전통문화를 더욱 풍성한 형태로 만들었다. 이러한 형태는 두 개의 문화가 거의 전면적인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제3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문화이식과정에서 융합현상으로 설명된다.

이상으로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식민통치는 문화적 동질성을 부여하였으며 스페인의 식민문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전통문화가 복합되어 오늘날의 이색적인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이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스페인의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의상에 대한 미적 감각을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현대패션의 디자인에 창조성을 높여 주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꽈미선, 스페인과 멕시코지역의 민속복식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2) 장선영, 식민지시대의 라틴아메리카, 해외문제, 6집, 1971
- 3) 정경원, 중남미건축, Faro, 제11호, 1997
- 4) 임상래 · 김우성 · 박종탁, 중남미사회와 문화,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 5) 강태진외4인, 라틴아메리카문화, 호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 6) 한상복 · 이문웅 · 김광억,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7) Redfield,R., Linton,R., Herskovitz, M.J.,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Vol.38, 1936
- 8) Thurnwald, R., Die Psychologie der Akkulturation, Kultur anthropologie, Hrsg.von Wilhelm Emil Mühlmann und Ernst W., 1966
- 9) Dankwort,D., Probleme des Anpassung an eine fremde Kultur, 1959
- 10) Ott Marti, A.E., Probleme of Tibetan Integration in Switzerland, Ethnologia Europaea, Vol.IX, 1, 1976
- 11) 유태순, 재독한국여성의 문화이식, 비교민족학 창간호, 5, 1985
- 12) Moore,W.E., Social Change(2nd ed.), Prentice-Hall, 1974
- 13) 우덕룡, 라틴아메리카 문화에 대한 소고, 중남미종합연구론집, 1983
- 14) Mariano,P.S., A Cultural History of Spanish America from Conquest to Independence, Univ. of California Press, 1965
- 15) 현대평론집, 지구촌 모든 나라정보, 세광출판사, 1998
- 16) 강석영 · 최영수, 스페인포르투갈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 17) Beazley,M., World Dress, Reed Consumer Books Ltd, 1994

- 18) 田中薰・田中千代, 原色世界衣服圖鑑, 保育社, 1961
- 19) Robert Harrold, 유태준 역, 세계민속의상, 흥익 출판사, 1997
- 20) 황춘섭, 세계전통복식, 수학사, 1997
- 21) 東京家政大學博物館, 五色の燐きクアテマラ・マヤ 民俗衣裳展, 東京家政大學出版部, 1998
- 22) 芳賀日出男, 世界の祭り&衣装, 株式會社クラフィック社, 1983
- 23) Snowden,J., The Folk Dress of Europe, Mills & Boon Ltd, 1987
- 24) Korean Air, Morning Calm, 9, 1995
- 25) Jehnich, R., Dagmar, D.U., Alverdens Kilderdr-aagter I Farver, Politikens Forlag Copenhagen, 1976
- 26) Sayer,C., Mexican Costume, British Museum Publications Ltd, 1985
- 27) Bruhn,W., Tilke,M., Kostümgeschichte in Bildern, Verlag Ernst Wasmuth Tübingen, 1955
- 28) Sarmiento,D., Facundo, Estrada, Bs.As., 1940
- 29) Harrold,R., Folk Costumes of the World, Blandford Press Ltd, 1978
- 30) 吳慧婷, 臺灣女性鞋子演變之探討, 國際服飾學術會發表集, 1998
- 31) 임혜상, 문화인류학, 삼문출판사, 1998
- 32) Malinowski,B., The Dynamics of Culture Change, Yale University, 1945
- 33) 이유경·김진구, 우리나라 양복수용과정의 복식변천에 대한 연구, 복식, 26호, 1995

## ABSTRACT

### Folk Costume on Acculturation Phenomenon.

-Focused on Spain and Latin Americ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what influences the Spanish folk costumes had on the ones of Latin America on Acculturation Phenomenon during Spanish reign over Latin America. As a method of doing this, the researcher compared and analyzed the style of dress such as color, material, design and accessories of Spanish folk costumes and the ones of Latin America, classifying them by male costumes and female ones respectively, by studying reference books, literature, and photographs related to the folk costumes and visiting this area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can find out Spanish folk costumes were accepted to the folk costumes of Latin America just as it were. Second, Spanish folk costumes have been developed to be suitable for the climatic, geographic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 Third, the folk costumes of Latin America become much simpler by the influence of Spanish culture. Fourth, as a result of cultural contact, mixture with Spanish culture, native folk costumes of Latin America had had more various style.

In conclusion, Spanish government over Latin America had given a cultural homogeneousness and colonial culture of Spain and traditional culture of Latin America have been mixed and created the present unique folk costumes of Latin America. Therefore good understanding and use of the sense of beauty of folk clothes of Latin America influenced by Spain culture will be helpful to enlarge creativeness of design of modern fashion.